

“헌혈 웨이팅 처음”... 헌혈 풍경 바꾼 ‘두쫘쿠’

지난 24~25일 센터 3곳서 두쫘쿠 증정 프로모션 운영시간 전부터 대기줄... 헌혈자 1.5~2배 증가 “혈액 부족한 동절기 모처럼 활력... 재추진 고려”

혈액 보유량이 빨간불이 켜지는 겨울철이지만 지난 주말 제주 헌혈의 집은 방문자들이 북적거렸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꺼내든 대세 간식 ‘두쫘쿠(두바이 쫘득 쿠키)’ 카드 덕분이다. 27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제주혈액원은 지난 24~25일 주말 이틀간 도내 헌혈의 집 신제주, 한라, 서귀포센터 3곳에서 두쫘쿠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헌혈에 참여하면 긴 시간을 기다려 구매해야 하는 ‘두쫘쿠’ 1개를 무료로 증정하는

식이다. 최근 서울과 부산, 광주, 충북, 전북, 대구·경북 등 전국의 혈액원은 헌혈 참여 유도를 위해 두쫘쿠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제주혈액원도 두쫘쿠 프로모션을 진행한 결과 실제 헌혈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혈액원에 따르면 하루 평균 40~50명이던 헌혈자가 프로모션 기간에는 70~80명으로 1.5~2배가량 늘었다. 지난 24일 0시 기준 도내 혈액보



지난 24~25일 헌혈의 집 신제주센터 등 3곳에서 진행된 두쫘쿠 프로모션. 제주혈액원 제공

유량은 7.9일분이었다. 프로모션 직후인 26일 0시 기준 혈액 보유량은 10.7일분으로 약 3일분이 늘었다. 혈액형별로는 모두 2~4일분씩 늘어 A형 11.7일, B형 8.9일, O형 8.4일, AB형 20.3일을 기록했다. 헌혈의 집이 문을 열기도 전에 대기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혈액원

관계자는 “헌혈 웨이팅은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참여자가 많아 간식 공급에도 애를 먹었다. 제주혈액원은 당초 센터마다 선착순으로 두쫘쿠 50개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빠르게 소진되는 탓에 10~20개를 추가로 공급해야 했다. 행사에 쓰인 수백 개의 간식은 모두 카페에서 공수했다. 제주혈액원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학교 방학과 추운 날씨가 겹쳐 헌혈이 저조한데 이번 행사로 두쫘쿠 효과를 톡톡히 봤다”며 “도민들이 기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두쫘쿠를 포함한 여러 참여형 이벤트 추진을 고안하겠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현장은 그대로”

민주노총 제주본부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제정·시행된 지 4년째를 맞은 27일 제주 지역 노동계가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노조)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을 엄격히 집행하고 실효성 있는 양형 기준을 즉각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중처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법은 노동자의 죽음을 멈추지 못했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벼웠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유리기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가해자 엄벌을” 대책위, 성명 통해 실질적인 재조사·엄벌 촉구

도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장애인 청소년을 강제로 수행한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도내 인권단체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청은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

고 추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제주도청은 전수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결과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피해가 당사자 신고로 드러났음에도 추가 조사에 미온적 반응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유리기자

노후아파트 연기감지기 보급 제주소방, 2600세대 대상 추진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화재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열을 감지하는 기존 열감지기보다 약 2분 먼저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린다. 이 때문에 화재 발생 초기에 거주자가 대피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세대 내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다. 이 가운데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를 우선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는 향후 신청 방법과 절차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는 2600세대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연차별로 보급 대상을 확대해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양유리기자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 27일 제주시 한림읍 용포리 해안에서 바다환경지킴이들이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해양오염사고·오염 전년 대비 크게 감소

지난해 25건... 전년 대비 9건 감소·유류 유출도 줄어

지난해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도내 해양오염 사고는 총 25건이다. 전년(34건)보다 9건 줄어든 수치다.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량은 7.6kl로 전년(85.8kl)보다 77.9kl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 13건, 서귀포지역 12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서귀포지역 유출량이 5.96kl(7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기상이 급변하는 겨울철(11~3월)에 오염사고가 주로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군은 좌초나 침수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높은 해양사고 발생 시 유류 이격, 봉쇄 조치 등 배출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유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대비 지난해 어선사고가 감소했고 대규모 유류 유출 사고가 3건에서 1건으로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의 허파’ 꽃자왈 사유지 매입 속도

도, 올해 40억 투입 생태등급지·국유림 연결지 매입 2028년까지 200ha 추가... 고향사랑기부사업도 추진

제주도와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이 국비 확보는 물론 각종 기금 마련을 통해 ‘제주의 허파’ 꽃자왈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국비(산림청 재배정 예산) 4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조천읍과 한경면 일대 꽃자왈 지역의 사유림 40ha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희귀 산림생태 보전을 위한 생태등급 1~2급지와 집단화원 산림청 국유림 연결지 등이다.

이에 도는 상반기에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꽃자왈 매수에 나선다. 접수기간은 ▷1차 1월 20일~2월 28일 ▷2차 3월 1일~4월 30일 ▷3차 5월 1일~6월 30일 등이다. 앞서 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꽃자왈 매수사업을 통해 642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546ha를 매입했다. 도는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국비 200억원을 추가 투입해 2028년까지 200

ha 매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고향사랑지정기부사업을 별도로 추진, 전국의 기부자의 자발적 참여로 제주꽃자왈 살리기 10억원 모금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 5억원을 투자해 꽃자왈 5ha씩을 매입할 예정이다.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도 사유지 꽃자왈 매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지난해 도내 학생을 비롯한 도민과 기관·단체 등이 후원한 꽃자왈 공유화 기금 약 9억9000여만 원을 투입해 제주시 조천읍 선흥리와 한경면 저지리·청수리 일대의 꽃자왈 7.2ha를 매입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세계 유일의 제주고사리삼(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자생지와 국내에서 개가시나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제주백서향 등의 자생지가 포함돼 있어 식물 다양성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백금탁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